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착수

관광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무주군이 무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향후 1천만 관광시대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무주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관광개발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경쟁력을 갖추면서 관광발전 전략 및 실행 로드맵을 설정, 관광개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지역성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 청사진을 보면 오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머루와 인동굴을 비롯해 적상산성 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 순두부 테마파크 조성, 적상호 주변개발 및 밀도산 동굴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벼룩길 자연화 사업을 비롯한 천마특화사업 추진, 무주읍을 통과하는 금강과 남대천, 그리고 주변의 산악지역에 이르는 지역관광벨트화 추진, 국내 최고의 생태휴양관광티운 조성 등을 꿈꾸고 있다.

특히 태권도원을 비롯해 반디랜드, 구천동33경, 덕유산과 적상산 등 보유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인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주요



무주군은 향후 1천만 관광시대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과업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용역착수 보고회에 참석자들은 △6개 읍·면 사전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한 읍·면별 관광

무주군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용역의 목적은 무주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무주민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며 “군의 제대로 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8월말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완료될 예정으로 과업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산골음식 실용화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진안군은 관내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치유 음식으로 진안고원의 식재료를 이용한 웨빙 산골음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개발된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진안고원 산골 음식 실용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관내 외식업소 6개소를 1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소에는 진안군민의 특색있는 대표 맛집 육성을 위해 업소의 기준메뉴 보완 및 시그니처 메뉴 개발, 합리적 음식 가격 제안, 서비스 수준 향상 교육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전문가를

제공하며 각 사업장마다 다른 영업환경에 맞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업소별로 다른 영업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투입돼 6개월간 1:1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찾아가는 홍보 실시

진안군은 9일, 안전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에 ‘2022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수박, 사과, 전고추, 인삼 등 4개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의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게 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올해기준 2021.

4.1.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조공), 농협·전북인삼조합과 계약체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계약한 조직에 계통출하를 실시한 농업인으로 품목당 1,000㎡에서 10,000㎡의 범위에서 동일 필지에 대해 1년 기준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직불금 수령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해야

장수군

장수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서는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과 유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WTO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립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보건의료원, 독거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관리

무주군보건의료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어르신을 위한 집중 방문 건강관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에 나서 건강한 어르신복지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과 보건진료직, 읍·면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읍·면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대상자는 650명(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75세 이상 어르신 부부 가구 중심)이다.

이들 건강관리 방문단은 어르신들을 만나 별도 건강문제 및 안부확인, 밀번 헤드리기, 환절기 및 황시와 관련된 미세먼지 대비한 건강을 중점 살피고 있다. 또한 건강 체크(혈당·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복약지도와 함께 약물관리도 상담을 실시한다.

이밖에 군은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구강보건센터, 통합건강증진팀 등과 연계한 대내·외부 맞춤형 관리와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직거래 장터서 진안홍삼알려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3회 물벼나눔 장터·햇삼홍삼 팜업 스토어’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 창립 55주년 맞이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K-ESC 경영 실천 프로그램으로 금강 유역 대표 인삼홍삼 산지인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의 인삼 재배 농가를 지원 위한 직거래 장터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사업단은 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인 ‘진안홍삼 달인액’, 프리미엄홍삼정골드 스틱’과 진안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인 ‘진안홍삼 데일리’, ‘홍삼 깔부선’, 진안군 명품 인삼주 ‘진안블랙’ 등 10개 품목 230개 제품을 판매하며 58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